



08-34 (통권 212호)
2008.08.29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규모 확대
- 한국, 해외투자잔액 감소

경영 노트

- 미국 기업의 몰락

사회 트렌드

- 뉴욕커 증후군
- 세계는 자출족(자가용 출근족) 시대

차이나 리포트

- 올림픽 이후 중국 증시 향방과 대응방안

저널 브리프

- 글로벌 기업 '찬스'...중국은 '업그레이드'

洗心錄

- 창조에 꼭 필요한 “배태된 지능”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규모 확대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모기지 대출 채권 부실뿐만 아니라, 2차 파생 상품의 손실 증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킴으로써 실물 부문으로도 부실이 전이됨
 - IMF(2008월 4월)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추정 손실이 9,45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부실의 여파가 경제전반으로 확대됨
 - 대출채권, 주택저당대출유동화증권(MBS) 및 부채담보부증권(CDO) 관련 상품, 그리고 소비자 금융시장으로 부실이 확대됨
 - 하지만, 손실 규모는 추정기관에 따라 최소 1,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추정되는 등 다양한 견해 제시되고 있음
 -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부의 효과(wealth effect)는 가계소비 위축으로 이어짐
- 한편, IMF(8월 25일)는 2008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9%로 7월의 전망치인 4.1%보다 0.2%p 하향 조정하였고, 미국의 2008년 성장률은 1.3%로 유지하였으나 2009년 전망치를 0.9%로 이전보다 0.3%p 낮게 예상함

□ 한국 대외투자잔액 감소

- 한국은행(8월 29일)에 따르면, 한국의 6월말 대외투자잔액은 전기대비 2.1% 감소함
 - 2008년 6월의 대외투자잔액은 5,726억 달러로 3월말의 5,849억 달러보다 2.1% 감소, 2007년 말 대비로는 2.6% 감소함
 - 형태별로는 기타투자자 직접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준비자산과 증권투자는 감소하였음
 - 특히, 대외증권투자의 큰 폭 감소는 해외주가하락으로 인한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123억 달러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임
- 한편, 한국의 대외채권은 6월말 현재 4,225억 달러로 3월말의 4,270억 달러보다 1.0% 감소하였고, 단기채권은 3월에 비해 32억 달러, 장기채권은 13억 달러 감소함

□ 미국 기업의 몰락

- 미국 기업들이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투자가 감소하면서 M&A와 파산이 급증하고 있음
 -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이뤄진 인수·합병 가운데 해외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한 경우는 31%로 80년 이래 최고라고 보도
 - 로이터 통신은 회사채 부도건수가 올 들어 4배 증가하면서 내년 중 자산규모 1억 달러 이상 기업의 부도건수가 10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

- 소비감소와 기업대출 증가, 달러약세, 경쟁력 약화,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미국의 주요 상징 기업들이 몰락함
 - (소비 감소) GE는 실적부진으로 가전 및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기로 하고, 스타벅스는 600여 매장의 폐쇄와 종업원 1만 명 감축을 계획중
 - (기업대출 증가) 라스베이거스 등 10여 개 카지노를 운영하는 트로피카나 엔터테인먼트와 가정용품 체인 업체인 '리네스 엔싱스'가 파산함
 - (경쟁력 저하) GM은 캐딜락 등 대형세단과 트럭 위주의 생산라인에 안주하여 유가 고공행진으로 인한 중소형 수요 증가에 부합하지 못함
 - (달러 약세) 제약회사인 스위스 로슈와 이스라엘 테바는 각각 미국의 지넥텍과 바르를, 맥주회사인 벨기에 인베브는 안호이저부시를 인수함
 - (오일머니 유입) 중동 아부다비 국부펀드는 크라이슬러 빌딩을, 러시아 세버스탈 철강회사는 미국의 스페로즈 포인트와 에스마크를 인수함

- 국내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M&A로 글로벌화를 앞당기고, 더불어 미국경기 악화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중국, 인도 기업들도 미국 기업의 M&A를 고려하고 있는 바, 한국기업들도 조선, 철강, 금융 등에서 해외 M&A를 추진해야 할 것임
 - 한편, 환율 등 미국경기 악화로 인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사전에 구축해야 할 것임

□ 뉴욕커 증후군*

-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내 다른 도시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신고식’을 톡톡히 치른 뒤 스스로 뉴욕커라고 느끼는 자각의 순간을 경험한다고 전함
 - 뉴욕커 증후군이란 ‘빨리 걷고 빨리 말하며, 미로로만 보이던 뉴욕의 지하철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자주 냉소적이 되며, 인내심이 줄어드는 것’을 말함
 - 한마디로 영어도 걸음도 빨라지는 현상임
 - 뒤에서 봤을 때 빨리 걸으면 뉴욕커, 천천히 걸으면 관광객이라고 함
- 뉴욕커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뉴욕의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임
 -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서, LA의 생활비가 연간 5만 달러인데 반해, 맨해튼은 7만 2,793달러라고 함

□ 세계는 자출족(자가용 출근족) 시대**

- 전 세계에 자전거 출퇴근 열풍이 불고 있음
 - 고유가 시대와 함께 자전거가 이제 상당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
 - ‘자전거 천국’으로 불리는 네덜란드는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27%나 되며, 특히 7.5km 이하 단거리 이동에선 35%나 된다고 함
 - 일본은 2001년 13%였던 것이 지난해 15%로 늘었고, 2025년에는 25%, 궁극적으로는 30%를 목표로 친자전거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은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3%도 안 되며, 자전거 통근·통학 인구는 0.9%에 불과
 - 자전거 타기는 개인적으로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주고, 사회적으로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 전지구적으로는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을 지키는 효과까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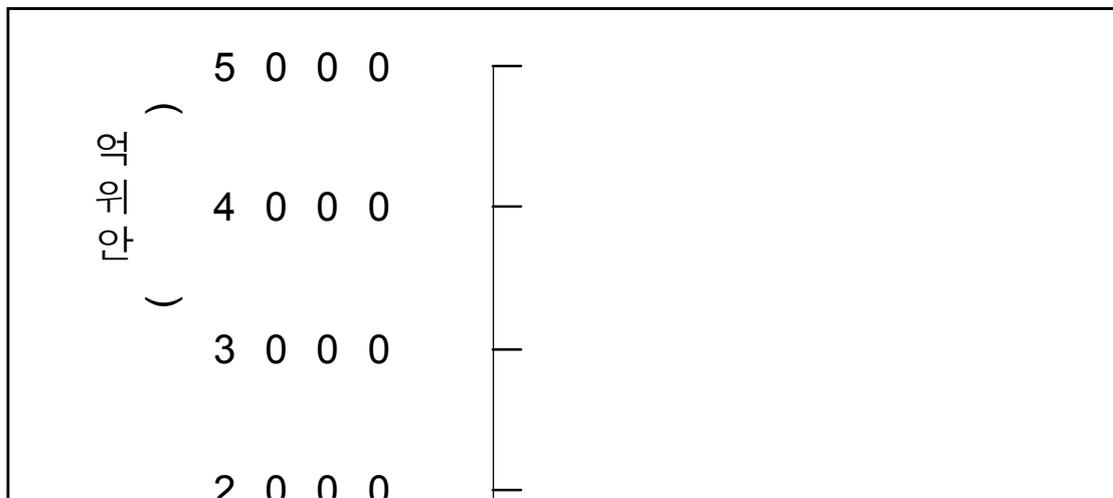
* 이 글은 조선일보(2008.8.29) 기사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이 글은 중앙일보(2008.8.28) 기사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올림픽 이후 중국 증시 향방과 대응방안

- (개요) 2007년 10월 이후 중국증시는 급속한 하락세로 전환되어 버블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조정 압력을 받고 있음
 - 상해종합주가지수는 2007년 10월 말 6,100p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전환하여 2008년 8월 말 현재 2,400선이 붕괴됨으로써 60% 이상 하락함
 - 상해증시의 주가수익배율(PER)도 작년 말의 70배에서 불과 10개월 만에 20배 아래로 떨어짐
 - 그러나 올림픽 관련 주식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올림픽 이후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함

<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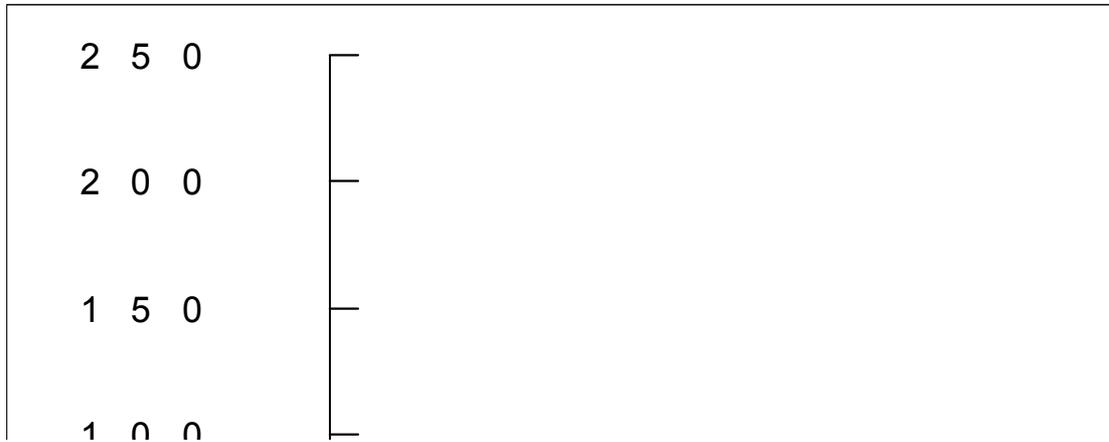


자료 : 상해증권거래소

- (원인) 중국 증시의 부진은 대량 비유통주의 시장 유입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상장기업의 실적 부진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 악화에 기인함
 - 비유통주식의 유통화 : 2008~2010년 사이에 유통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신주 발행이 없더라도 현재 유통규모의 2배에 달하는 14조 위안(2조 달러) 정도의 물량이 시장에 추가로 유입될 예정임

< 중국 비유통주 유통화 물량 추이 >

(단위 : 억 주, 억 위안)



자료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 **기업이익 급감** : 상해와 심천 증시 상장기업들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42.7%와 49.3%의 이익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8년 상반기에는 24.4%에 그쳐 시장 기대에 못 미침
- **(중국 정부의 대응)** 증시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외국자본의 투자한도 확대와 비유통주의 유통 연기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
 - 외국자본의 투자한도 확대는 위안화 절상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비유통주의 유통 연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 **(시사점)** 중국 증시의 버블 붕괴는 대량 핫머니의 유출 사태를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급상승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은 환위험 방어 기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신흥개발국의 대표성을 지닌 중국 증시의 붕괴는 한국, 동남아, 인도 등 주변국 증시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들은 펀드멘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글로벌 기업 ‘찬스’...중국은 ‘업그레이드’*

- 올림픽은 월드컵과 함께 지구촌 스포츠 이벤트의 양대 산맥이기도 하지만 기업들로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비즈니스 대전의 무대임
 - 특히나 베이징 올림픽은 급팽창하는 중국 소비 시장 공략에 나서는 다국적기업들에 13억 인구의 시선을 한 번에 받는 기회 제공
 - 중국 기업에게는 기업들의 세계화를 시작하는 신호탄으로서의 무대가 되고 있음
- 비즈니스 올림픽은 8월 8일 개막한 베이징 올림픽을 닷새 앞둔 3일에 미리 시작됨
 - 올림픽 마케팅 : 삼성전자, 제너럴일렉트릭(GE), 존슨앤드존슨, 아디다스 등 올림픽 후원기업들을 중심으로 거대하고, 다양한 홍보 실시

< 베이징 올림픽 공식 후원사 >

회사	스폰서 분야	회사	스폰서 분야
삼성전자(한국)	무선통신 장비	코닥(미국)	사진
코카콜라(미국)	음료	맥도날드(미국)	식품
존슨&존슨(미국)	헬스케어 제품	GE(미국)	전력·보안·치료 시스템
파나소닉(일본)	오디오·TV	아토tm 오리진(프랑스)	정보기술
오메가(스위스)	시계	레노버(중국)	컴퓨터 및 관련장비

-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 진출 열쇠를 쥔 셈 : 리닝(스포츠용품), 아오캉(가죽신발), 취안취덕(오리 전문점) 등의 대표적 중국 기업들은 올림픽 마케팅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음
- 싸구려 이미지를 벗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 : 중국의 컴퓨터 업체 ‘레노버’가 시드니 올림픽 후원을 계기로 PC업체 3위로 도약했듯이 중국 기업이 글로벌 하는데 최대 걸림돌인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올림픽을 통해 끌어 올릴 것을 기대
- 현대사회의 올림픽 개최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경제 성장을 위해 지나쳐야 할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됨
 - 더 이상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님을 깨닫고 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림픽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이 글은 『Global China』 (2008.08.18)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창조에 꼭 필요한 ‘배태된 지능’

우리 모두는 뇌가 진실을 만들어낸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뇌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 저명한 학자들이 모인 그룹에서 생각이 정확히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시작했는데, “인간의 사고는 머릿속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스물 다섯 살의 젊은 화가가 루브르 박물관의 골동품 컬렉션을 보관하기 위해 세워진 트룩카테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나 남태평양 등 프랑스 식민지에서 모아온 온갖 기묘한 물건들이 ‘박물관 전시’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펼쳐 있습니다. 냄새도 지겨울 정도로 심했지만, 이 화가는 꼼짝하지 않고, 무슨 충격을 받은 듯 골동품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통념과 상식을 벗어나 새로운 미술 세계를 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피카소의 ‘아비뇰의 아가씨’입니다.

인간은 날마다 맞닥뜨리는 정보 과잉으로 머리를 덜 쓰고도 성공할 수 있도록 외부의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구조화하는 데 머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 사고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는 데 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능이 인간의 뇌를 떠나 인공물 등에 내포되었다는 의미로 ‘배태된 지능’(embedded intelligence)이라 합니다. 배태된 지능이 뇌에서 확장되어 외부 환경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개개인의 사고와 확장된 지능이 서로 연관지어 새로운 생각을 형성하고 조직화합니다. 이른바 창조적인 사고를 일으킵니다. 피카소가 배태된 지능이 잠재되어 있던 골동품과 우연한 만남을 가지면서 영감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배태된 지능’은 여기저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유형물뿐만 아니라 관습, 사회제도, 회사의 사업 방식이 담겨있는 비즈니스 모델 등도 포함됩니다. 창조적 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요즈음에 다양한 것들과 만남을 갖고, 경험을 쌓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 마크 트웨인(1835~1910) : 미국 소설가